

#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7월 10일  
제1904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 10, 33-37)



〈착한 사마리아인〉, 렘브란트

## 연중 제15주일 (다해)

### 제 1 독서 신명 30,10-14

그 말씀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 화답송 시편 69(68) | ◎ 가난한 이들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 제 2 독서 콜로 1,15-20 |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입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복음 루카 10,25-37 |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그때에<sup>25</sup>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sup>26</sup>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sup>27</sup> 그가 “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까.” 하고 대답하자,

<sup>28</sup>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sup>29</sup>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sup>30</sup>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sup>31</sup>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sup>32</sup>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sup>33</sup>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sup>34</sup>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sup>35</sup>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sup>36</sup>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sup>37</sup>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 †복음 묵상

어느 겨울,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러 가던 길에,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행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괜한 참견으로 일정에 방해를 받을까 봐 안타까운 마음만 지닌 채 그냥 지나치려는데, 오지랖 넓은 동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출동 부탁드립니다.”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이나 참견하는 면이 있다.’는 뜻인데, 통념으로는 남의 일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참견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오늘 복음의 사마리아 사람에게 꼭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으려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왠지 사제와 레위인이 이해되고 때로는 그들을 변호하고 싶어집니다. 그때는 하느님께 드릴 제사와 성전 봉사 때문에 너무 바빴을 것이고, 시간이 여유로웠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과연 그러하였을까요?

자신이 이르고자 하는 곳을 향하여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점점 지나치는 것이 많아지고, 참견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많아집니다. 손수건을 떨어뜨린 앞 사람에게도, 어느 집에 쌀이 떨어졌다는 말에도, 언덕을 오르는 할머니의 숨 가쁜 소리에도 도무지 무심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잠시 멈추어 서고, 그냥 지나쳐 가다가도 마음이 쓰여 되돌아가는 선택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위한 오지랖’,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김인호 루카 신부>

성화 해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루카 10,29)

렘브란트(Rembrandt, 1606-1669)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평생 동안 그림의 소재로 삼았다. 1633년에 그린 <착한 사마리아인> 동판화를 필두로, 1638년에는 유화로 <착한 사마리아인이 있는 풍경>을 그렸다. 1641년경에는 드로잉으로 <여관으로 옮기는 착한 사마리아인>을 그렸고, 1644년에는 <다친 자를 치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을 그렸으며, 1648년에는 다시 드로잉으로 <여관으로 옮기는 착한 사마리아인> 습작을 그렸다. 그런데 1633년에 그린 동판화는 그의 제자들에게 의해 1630년대에 유화로 다시 그려졌다. 그러나 1630년대에 그린 유화 작품에서는 동판화에 있는 용변을 보는 개가 생략되었고, 동판화의 역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졌다.

괴테는 1633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고 ‘사상가 렘브란트’라고 간략하게 표현했다. 렘브란트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복음서에 언급되지 않는 인물 몇 명을 대수롭지 않게 추가했다. 괴테의 감상의 핵심은 렘브란트가 주요 인물만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까지도 치밀하게 짜인 이야기 구조 속에 포함시켰고, 묘사된 사건을 당대의 상황으로 완벽하게 재구성했다는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여관이 대각선의 구도로 배경에 그려져 있다. 여관 앞에는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돈을 건네주며 돌봐달라 부탁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성경말씀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노새에서 부상당한 사람을 내리는 두 남자를 그렸고, 창문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는 남자와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는 여인과 말 앞에서 용변을 보는 개 한 마리를 추가해서 그렸다.

만약에 죽어가는 사람이 주위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착한 사마리아인>, 렘브란트, 동판화



<착한 사마리아인>, 렘브란트, 유화

하겠는가? 두 남자처럼 그를 부축하여 도와주겠는가? 아니면 방관자가 되어 그를 바라보기만 하거나 물을 기르는 여인처럼 그냥 자기 일만하겠는가?

이것이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는 렘브란트의 위트와 재치이다. 죽어가는 사람이 여관에 들어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관을 하거나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용변을 보는 개와 다르지 않고, 자기 일에 바빠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 사제와 레위인이 용변을 보는 개와 다르지 않다는 익살스러운 풍자를 렘브란트는 이 작품을 통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우리도 자기 일에 바빠 고통받는 이웃을 보지 못한 채 개 같이 살고 있지는 아닌가?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가르치는 것은 단순하다.

누가 이웃인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6)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전문 보기: <https://m.blog.naver.com/sonyh252/120183902352>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나는 사랑해 주고  
나를 찾는 이들을 나는  
만나준다.



삼언 8.11

바로로 말 콘텐츠

교황님의 기도 지향 7월

노인들

민족의 뿌리와 기억의 상징인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젊은이들을 도와 그들이 희망과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도록 기도합니다.

### 1 전신자 연중 특강

- 주제 : “회복의 삶”
- 일시 : 7월 10일(일) 오후 1시 - 오후 3:30 (친교실)
- 강사 : 김태광(아우구스티노) 신부님 (팔로티회)
- 문의 : 교육부장 (571) 275-0691

### 2 7주간의 여름 성경 특강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8:30
- 주제 : 역경과 축복(야곱과 열두 아들들) / 성조 이야기
- 강사 : 정인준(파트리치오) 신부님
- 문의 : 교육부장 (571) 275-0691
- 강의 일정과 제목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세요.

### 3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7월 10일(일) 오후 1시 (B-3,4)

### 4 알링턴 교구 주교 집전 다민족 미사

교구내 다민족들이 교구장 주교님을 모시고 미사와 행사를 합니다.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7월 15일(금) 오후 7시
- 장소 : Our Lady of Good Counsel Catholic Church (8601 Wolftrap Rd SE, Vienna, VA 22182)
- 문의 : (703) 841-3881

### 5 하상회 월례회의

- 일시 : 7월 17일(일) 오전 11:30 (B-3,4)

### 6 안나회 월례회의

- 일시 : 7월 17일(일) 오전 11:30 (A-1,2,3)

### 7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7월 17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 8 수녀님 연피정 안내

- 이 스텔라 수녀님 : 7월 7일(목) - 7월 15일(금)
- 안 다니엘 수녀님 : 7월 26일(화) - 8월 3일(수)
- 수녀님들을 위해 기도 중에 기억해 주세요.

### 9 CYO 성가대원, 피아노 반주자 모집

- 미사 중 노래할 성가대원과 피아노 반주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6<sup>th</sup>-12<sup>th</sup> 대상)
- 문의 : 조 스테파니아 (703) 725-3167

### 10 주일학교 등록 안내 (K -12<sup>th</sup>)

- 2022 - 2023 주일학교 등록을 성당 로비에서 받습니다.
- 열리 버드 등록 기간 : 7월 10일(일) - 7월 31일(일)  
2시 미사 전·후
- 등록비 : 한 자녀 - \$100 / 한 가정 두 자녀- \$180 / 한 가정 세 자녀 이상 - \$200 (7월 이후)  
\*Early Bird Registratoin Discount(July 10 - 31):  
\$10 off 1 child / \$20 off two children
- 문의 : CCD 윤정 보일 (703) 371-3589  
CYO 구아름 (703) 599-8869

### 11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문의 : 윤정 보일 CCD 교감 (703) 371-3589  
구아름 CYO 교감 (703) 599-8869

### 12 2022년 이냐시오 영성 침묵 피정(4박 5일)

- 이냐시오 영성 침묵 피정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내 인생에 함께하시는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 주제 :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 (지도신부 - 정강영 베네딕토 신부/예수회)
  - 일시 : 8월 12일(금) - 8월 16일(화)
  - 신청 : 피정비 \$520(신청비 \$250)을 7월 30일(토)까지 납부
  - 장소 : 9270 Loyola Retreat Rd Faulkner, MD 20632
  - 문의 : 김영옥 실비아 (703) 969-5067  
김정수 이냐시오 (703) 963-9624

### 미사예물의 올바른 이해

미사는 천주교 전례의 핵심이며 신자들이 바치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언제나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 즉 지역공동체뿐 아니라 세계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미사는 산 이와 죽은 이, 신자와 비신자, 개인이든 단체든 구별 없이 누구를 위해서도 봉헌될 수 있습니다(교회법 901조).

미사에 특별한 지향을 둔다고 공동체의 미사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며,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 개인을 위한 기도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 ▶ 가끔 미사예물을 봉헌했는데 예물 봉투에 기록한 이름을 주례사제가 읽어주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미사 지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 지향은 말 그대로 봉헌자의 기도와 염원이지, 미사의 은혜를 돈으로 사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 또한 세례를 받지 않은 이들에게 세례명을 붙여서 미사 지향을 봉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례는 성사이고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 ▶ 미사예물(미사 지향)을 봉헌했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 ▶ 전에 어떤 본당에 있을 때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미사예물을 바친 신자가 있었는데 미사예물 액수가 컸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액수가 많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성당에서 연미사를 바치는 것이니 제사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미사예물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했습니다. 미사예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들어가면 됩니다.

미사는 돈으로 살 수 없고, 개인이 독점할 수도 없습니다. 미사에 특별한 지향이 있다 하더라도 미사는 항상 공동체 전체를 위한 미사입니다.

### 김태진 주임신부님의 영명축일을 축하드립니다.

김태진 주임신부님의 베네딕토 영명축일(7월 11일)을 축하드리며 주님 사랑 안에서 영육간 건강하시기를 한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7월 3일(연중 제14주일)

주일 헌금	\$ 6,251.00
교무금	\$ 8,510.00
교무금(신용카드)	\$ 3,040.00
감사 헌금	\$ 470.00
온라인 봉헌	\$ 3,440.00
<b>합계</b>	<b>\$ 21,711.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 버지니아 성정 바로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 7월 14일(목) 오후 5:00-6:00
- 7월 15일(금) 저녁 8:00-9:00
- 7월 17일(일) 오전 6:00-7:00

1. 세계 성당을 가다 - 아르헨티나 루한의 성모 대성당
2. 윤원진 신부의 위대한 성인들 : “아브라함” (3)

### ◇ 복사기 사용 ◇

- ▶ 복사기 사용을 제한합니다. 복사기 사용이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주세요.

###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0 AM</li> <li>• 10:00 AM(교중미사)</li> <li>• 2:00 PM(학생미사)</li> <li>• 5:00 PM(청년미사)</li> </ul>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